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5달러 이야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동안, 어릴 적 추억이 스며있는 이야기는 먼지에 뒤집어 쓴 채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출간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같이 보내는 데 제격인 것 같아 소개한다.



<5달러 이야기>. 중국 베이징대 동문 사이인 장젠평과 후쭈칭이 엮었다. 동서양의 지혜와 유머, 인성교훈을 담고 있는, 부제(副題)처럼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씨앗 같은 33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엮음이 장젠평은 칼럼니스트이자 출판인, 후쭈칭 역시 중국과 홍콩에서 도서상을 수상할 정도로 출판활동이 왕성하다.

휴가지서 만나는 일상의 깨달음

먼저,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푸슈킨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푸슈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다. 푸슈킨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귀족 자제가 히죽거리며 말했다. "친애하는 푸슈킨 선생, 보아 하니 돈주머니가 가득 찼나 봅니다." 푸슈킨은 간단하면서도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자네는 때마다 집에서 돈을 쥐어 생활할 수 있지만 나는 평생 굶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네." 의외의 대답에 어리둥절하던 귀족 자제가 또 다시 물었다. "어디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바로 러시아의 문자 33개에서 온다네."

중국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는 무엇이든 잘하는 노인이라는 뜻인 <십전노인(十全老人)>으로 불렸다. 그가 평생 쓴 시는 10만 수가 넘는다고 한다. 건륭제와 문신 기호람(紀曉嵐)이 백룡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건륭제는 범종을 친 뒤 소리가 멈추기 전에 시를 한 수 지었다. "백룡사에서 금종을 치니..." 그러자 기호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건륭제가 정색을 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기호람은 "송구합니다. 폐하, 갑자기 '황학루에서 옥피리를 부니...'라는 이백(李白)의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이 세상의 어느 시와도 비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마침 폐하의 시구가 이백의 그 구절과 대구가 되지 않습니까?"

건륭제의 시가 이백의 시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절대권력인 황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품평을 하고, 자신의 총명함을 증명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5달러 이야기>는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읽고 나서 행복해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름날 기차 속에서, 여행지를 오가는 버스 속에서, 가족단위의 승합차 여행길에서 펴보면 가볍게 읽히고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5달러 이야기 / 장젠평·후쭈칭 엮음 / 문지영 옮김 / 에버리치출판사 / 9,500원

진정화

부처님 말씀 주머니에 스윽~



불교 기초 지식 총망라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불교에는 저렇게 작고 간편한 책이 없을까?' 물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얇은 형태의 경전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전이 일반불자들에게 유용할지라도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불교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간편하게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쏙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은 없을까?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이러한 독자들의 욕구에 맞춰졌다.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망라한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200페이지 내외의 11cm x 16cm 사이즈로 주머니, 핸드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불교를 익힐 수 있게 했다.

이 시리즈는 불교 교리와 수행, 문화, 신행과 의례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시리즈는 크게 <교리·입문·수행·명상·신행·문화 분야>로 나뉘며, 다시 각 분야별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구성돼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호근화적인 주석이 아닌 정의적인 사유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했다.

'교리·입문' 분야에는 사성제·팔정도, 육바라밀, 업과 윤회, 무아, 하심, 중도, 유식 등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들을 다뤘다.

'수행·명상' 분야에서는 생활명상, 위빠사나, 절, 염불, 주력, 참선수행, 염불선 등을 다뤘으며 '신행·문화' 분야에서는 아미타불, 약사

여래와 약사신앙, 나한과 나한신앙, 화를 극복하는 방법, 수험생을 위한 마음집중법 등으로 구성했다.

현재 <사성제·팔정도> <육바라밀> <아미타불>이 출간된 상태다.

<사성제·팔정도>는 일본 북교대학에서 '아라한'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필원(동국대 강사)이 부처님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며 설법을 했는지를 부처님의 유언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숫따니빠따>와 <니가야>경문에서 주로 인용했으며 저자가 자기 이해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육바라밀'을 엮은 성재현 동국대경원역경위원회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여섯 덕목으로 이뤄진 보살의 길은 배우기도 쉽고, 실천도 용이한 행복의 길이다"며 보살승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덕목을 저자의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들어 쉽게 썼다.

'아미타불'에는 여여법사(문사범회 대표법사)가 참여했다. 여여법사는 "삶의 진실은 나라는 존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니 단지 내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부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이라며 "이름 알아채고 무한한 살려짐에 맡기는 삶이 바로 염불이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저자가 '선택에 따른 파장' '궁극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모순된 존재의 구원' 등의 큰 주제를 범문형식으로 다뤘다.

'내 영혼의 작은 책' <사성제·팔정도> <아미타불> <육바라밀> | 이필원·여여법사·성재현 지음 | 민족사 펴냄 | 각 6500원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직지심체요절' 강의록 정리



<직지심경 강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대중 강의록으로 저자 덕산 스님(총복 혜은사 주지)이 2006년, 2009년 총복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책에는 <직지심체요절>의 내용 중 과거 7불과 인도 27 사상의 깨달음과 선문답을 해설한 부분이 담겨있으며 향후 <직지심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설도 모아 발간될 예정이다.

직지심경 강의 | 덕산 해설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 2000원

초등생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꾸민 책이다.

2500년 전 인도의 상황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 전법, 열반, 장례에 이르기까지 55개 주제로 나눠 구성된 책은 각 주제마다 삽화를 넣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초등학생을 위한 부처님 이야기 | 양태석 지음, 공휘 그림 | 능인 펴냄 | 9000원

자살, 그리고 남은 이들...



한국은 자살률 1위인 국가다. 하루 평균 서른 다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매년 약 12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 소리다.

한 사람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스무 명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매년 최소 2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자살을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온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죽은 사람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안개 되는 고통과 절망, 자책감 등 수많은 감정이 그들을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다룬 책들은 죽은 사람이 어째서 자살을 택하게 됐는지에만 주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저자 아리안 부아는 자살이 아닌,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야기는 스무 살 청년의 투신자살을 직후로 시작된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 후, 가족 구성원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두가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가족들은 왜 그 사람이 죽음을 택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타인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쯤, 그들 각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 <마리클레르>의 뉴스 편집장인 아리안 부아는 오빠를 자살로 잃은 자신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살렸다. 가까운 이들의 자살이 변화시킨 가족의 삶을 감각적이고 절제된 문체로 인간 심리를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남겨진 사람들 | 아리안 부아 지음·정기현 옮김 | 다른 세상 펴냄 | 9800원

이나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4월 초파일 10만 2천등 항공사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세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일어판 158면 | 10,000원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열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전전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경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을 구주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와 도강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판본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는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인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고,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고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샤 선언이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 불세존의 법륜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펴려.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I·II·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 158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1권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